

국민정체성과 위협의식,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박서연*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Identity, Threat Awareness,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 Moderating Effect of Living in Ethnic Places -

Seoyeon Park*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정체성과 위협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접촉이론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2013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 여부에 따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정체성은 다문화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협의식이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간 관계에서 사이에서 완전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위협의식의 부정적인 효과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외국인에 대한 위협의식을 줄이기 위한 다문화 인식교육이 필요하며, 외국인과 한국인 간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지역사회 및 공동체 차원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제어 다문화수용성, 국민정체성, 위협의식, 접촉이론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national identity and threat awareness on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whether contact theory actually work. For the analysis, this study used ‘2013 Korea General Social Survey’ data and compared two groups divided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y live in ethnic place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national identity does not have a direct effect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threat awareness has a full mediating effect between national identity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addition, the negative effect of the threat awareness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was greater in groups living in ethnic places. The findings suggest that multi-cultural awareness education is necessary to reduce the threat awareness toward foreigners, and that community-level programs are needed to prevent and coordinate conflicts

* 인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원(suyon1541@gmail.com)

arising from contact between foreigners and Koreans.

Key Word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National Identity, Threat awareness, Contact Theory

1. 서론

국내외적으로 국제화 및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경이 없다’라는 말이 흔히 사용될 만큼 국가 간 인구, 자본, 정보 등의 유·무형 재화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구 이동의 경우, 단순 관광 목적부터 학업, 근로, 이민 등 다양한 목적하에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의 규모는 2000년대 초 약 49만 명에서 2007년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하였고, 2019년 1월 기준 약 226만 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등록 외국인인 2000년대 초 약 21만 명에서 2017년 4월 약 125만 명으로 약 6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외국인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다문화·다종족 사회로의 전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2007년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법무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등의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외국인 관련 정책을 법무부에서 총괄하도록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으며, 사회서비스 확대 및 사회정착을 위한 복지적 측면에 주목하였다(김행열, 201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현재까지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의 법적 근간이 되고 있다(정희옥·박명아, 2018).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급속하게 이루어졌고,¹⁾ 특히 한국 사회는 단일 민족성이 강한 사회기에 이러한 현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채 낮은 다문화수용성을 보여주고 있다(백승대·안태준, 2013). 2015년에 실시한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지수는 100점 만점에 53.95점에 불과하다(안상수 외, 2015). 다

문화사회를 용인하지 못하고 차이를 다양성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외국인 집단에 대한 편견과 외국인 집단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황정미, 2010). 외국인은 소수집단으로서 주류집단과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이러한 차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면 사회적 다양성으로 여겨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외국인으로 인한 사회·경제·문화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여 그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태도로 이어진다(원숙연, 2011). 따라서 다문화사회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의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은 다양한 외국인 집단들과의 공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민자와 외국인수에 대응하여 이에 맞는 다문화정책 및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정책과 제도가 좋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개방적이며 긍정적인 태도, 즉 높은 다문화수용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백승대·안태준, 2013; 최경일, 2016).

이렇듯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내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구하는 연구들은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왔다. 구체적으로 초·중·고등학생(강운선, 2014; 박선웅, 2013; 이정아·이윤정, 2016), 대학생(남희은 외, 2014; 박혜숙·원미순, 2010; 정명희·박외병, 2014), 일반인(김경근 외, 2015; 윤인진·송영호, 2011; 이자형·김경근, 2012)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인 중 하나는 국민 정체성이다.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정체성의 형태로, 국가 구성원을 국민과 국민이 아닌 사람

으로 구분하여 국민이 아닌 사람, 즉 이주민이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배제의 태도를 갖는 기준이 된다(윤인진·송영호, 2011). 이러한 국민정체성은 국민적 유대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며(Tajfel & Turner, 1986), 특히 전통적으로 단일민족국가인 한국의 경우 국민정체성과 대부분 일치하는 민족정체성이 사회통합 및 다문화의식 함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양계민, 2009). 이러한 사회정체성은 문화적 다양성을 위협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연결되며(Coenders et al., 2003),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한 여러 변화나 문제 등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은 다문화수용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Pettigrew, 2003; Scheepers et al., 2002). 한편, 접촉가설에 따르면, 집단 간 접촉은 상대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기도 하는데(Allport, 1954), 실제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외국인과의 접촉 및 교류가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윤상우·김상돈, 2010; 윤인진·송영호, 2011).

이에 본 연구는 국민정체성과 위협의식,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이민자들을 한국사회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인지하는 위협의식이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또한 이민자들과의 접촉이 위협의식과 다문화수용성 간 관계에 조절효과를 갖는지도 파악한다. 분석을 위해 '2013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외국인은 인종 혹은 국적별로 전국적으로 다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박세훈·정소양, 2010; 박윤환, 2010; 정지은 외, 2011; 최은진·김의준, 2011; 하성규 외, 2011) 전국을 대상으로 할 때 다양한 외국인과의 접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외국인 및 이주민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원만한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다문화수용성의 개념 및 측정척도

다문화수용성은 복합적이며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명확하게 하나로 합의되지 않은 채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황정미 외(2007)는 다문화지향성을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로 정의한다. 민무숙 외(2010)는 다문화수용성을 “자신과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하여 집단별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공존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협력 및 노력하고자 하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윤인진·송영호(2011)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서로 다른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로 다문화수용성을 설명하였다. 이자형·김경근(2012)은 다문화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인 다문화주의의 실현과 관련된 정책을 얼마나 수용하는지의 정도로 정의했으며, 김혜순·이시철(2014)은 국내에 거주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내국인이 갖는 인식과 태도로 정의했다. 이러한 인지적 측면 외에, 김미진(2010)은 좀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행동적인 측면에서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적응능력”으로 다문화수용성을 보았다(김미진·김경은, 2018).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는 척도 또한 개념 정의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척도는 민족 혹은 종족배제주의와 사회적 거리감이며(백승대·안태준, 2013; 윤인진·송영호, 2011), 이는 다른 문화에 대한 거리감을 얼마나 두고 배척하는가를 의미한다(안상수 외, 2012). 이 외에도 윤상우·김상돈(2010)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친밀도와 다문화수용에 대한 태도를 통해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였으며, 황정미(2010)는 위협의식과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 수용에 대한 태도를 활용하였다. 윤인진·송영호(2011)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태도와 위협의식을 통해 측정했으며, 백승대·안태준(2013)은 윤인진·송영호(2011)가 사용한 척도뿐만 아니라 다문화

정책에 대한 태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또한 안상수 외(2012)는 민무숙 외(2010)가 사용한 다양성과 관계성 차원의 척도에 보편성 차원의 척도까지 고려하였다.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태도, 즉 문화적·정서적 수용의 측면에 많이 주목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이주민 혹은 외국인의 보편적인 권리를 얼마나 인정하고 수용하는가에 대한 태도이다. 이러한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수용은 인권과 관련된 것으로,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를 수용함에 있어 내국인의 권리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황정미,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외국인에 대한 정서적 수용과 외국인의 보편적 권리 수용 정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2) 다문화수용성의 영향요인

(1) 국민정체성

Brubaker(1992)는 국민정체성을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민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지, 어떤 기준을 통해 스스로를 한 국가의 국민이라 규정하는지에 대한 자기인식이라고 정의하였다. 국민정체성은 사회정체성의 한 형태로, 특정 국가 및 국민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갖는 신념과 감정을 의미한다(Wiggins & Zanden, 1994). 즉, 국민정체성은 특정 기준을 통해 자신을 국가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소속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정체성은 일반적으로 종족적-혈통적 모델과 시민적-영토적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Smith, 1991). 종족적-혈통적 모델은 동일 조상, 전통과 문화적 유산 공유 등을 기반으로 영토보다는 혈통을 중요시하는 모델이며, 시민적-영토적 모델은 영토와 정치적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모델이다(윤인진·송영호, 2011). 이는 민족정체성과 시민정체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백승대·안태준, 2013; 백시내, 2016; Brubaker, 1992).

이러한 국민정체성은 타인을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기준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윤인진·

송영호, 2011), 다문화수용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에 다수의 선행연구는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종족정체성은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지향성, 다문화개방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경근 외, 2015; 김경은·윤노아, 2012; 심우엽, 2010; Byrne, 2011). 반면, 시민정체성은 경제적 지원 정책과 같이 법·제도적인 측면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백승대·안태준, 2013).

하지만 이와 같이 국민정체성을 민족정체성과 시민정체성으로 나누어 이주민 혹은 소수민족 집단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는 것은 그 경계가 모호하고 한 국가의 국민들의 전반적인 국민정체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윤인진·송영호, 2011). 특히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부계혈통주의, 속인주의 등을 중요시하며 단일국가의 역사 속에서 민족적 동질성과 공동운명체에 대한 인식이 높았기에 민족정체성이 더 중요하거나 국민정체성과 많은 부분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김현숙 외, 2011; 양계민,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정체성의 유형을 민족정체성과 시민정체성으로 분류하지 않고 두 유형을 동시에 고려하여 전반적인 국민정체성으로서 조작화하였다.

(2) 위협의식

내국인이 외국인 및 이주민에 대해 느끼는 위협의식 또한 다문화수용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윤인진·송영호, 2011). 위협의식은 집단 간 경쟁이론(Quilian, 1995; Scheepers et al., 2002) 혹은 집단위협이론(Blalock, 1967)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즉, 소수자인 외국인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다수자인 내국인들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자원이나 권력, 이익, 이해관계 등이 침해받고 위협받는다고 느껴 불안감 및 적대적 감정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노성훈, 2013; 황정미, 2016).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경제적 위협뿐만 아니라 외국인범죄에 대한 위협이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김병학 외, 2013; 임도경·김창숙, 2011). 이러한 위

협의식은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불관용적 태도와 차별, 편견의 수준을 결정하며(백승대·안태준, 2013), 그들을 정책적으로 포섭할지 배제할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원숙연, 2008). 임동진·박진경(2012)은 위협의식이 차별배제 정책성향에는 정(+의 영향을, 다문화주의 정책성향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한편, 위협의식은 국민정체성에 대한 결과변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사회정체성 이론과 자기범주화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속한 내집단과 외집단을 분류하여 내집단은 옹호하고 외집단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정하나, 2016). 즉, 일정 기준에 의해 자신을 한 국가에 속한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일컫는 국가정체성이 높아지면, 자신이 속한 국가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편견이 더욱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위협의식을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독립된 변수로 보지 않고, 다문화수용성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보았다(백승대·안태준, 2013; 윤인진·송영호, 2011; 황정미, 2010). 또한, 한국 사회가 외국인의 증가를 점차 위협으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지향에만 초점을 맞춰와 위협의식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정하나, 2016). 하지만 위협의식은 하나의 독립변수로서 다문화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주기도 하며(이자형·김경근, 2012), 국민정체성 중 민족적 요인은 위협의식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정하나,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이주민에 대한 위협의식을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하나의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또한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3) 접촉경험

이주민 혹은 외국인과의 접촉경험도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접촉가설(Contact theory)과 관련된 것으로,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접촉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

로 보고, 외국인과의 접촉한 경험이 있거나, 해외에서 장기 체류 혹은 거주한 경험이 있다면 이로 인해 이주민 혹은 외국인 집단에 대한 편견을 완화시키고 갈등 해소 및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Allport, 1954). 즉, 접촉을 통해 상호교류를 함으로써 외집단에 대해 이해하고 그들과의 차이를 다양성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윤인진·송영호(2011)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수용성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다문화수용성 정도가 이전에 비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외국인과의 접촉과 교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촉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는 인종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한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만(김경근 외, 2015; 양계민·이우영, 2016; 황정미, 2016),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외국인과의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지역 혹은 이민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한 위협의식이나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강현식, 2010; 원숙연, 2011; David,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접촉경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외국인과의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집단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집단으로 나누어 위협의식에 대한 조절효과를 갖는지 집단 간 비교를 하고자 한다. Bobo(1983)는 주류집단이 소수집단에 대해 갖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소수집단이 주류집단의 자원과 관습 등을 위협한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접촉가설은 접촉을 통해 갈등이나 편견을 해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접촉경험은 이주민 집단이 주류사회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위협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접촉의 기회를 늘려 접촉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가정하고(원숙연, 2011),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 여부를 조절변수로 활용한다.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앞서 살펴본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대

한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교육학, 사회학, 인구학 등의 분야에서 특정 이주민 집단 혹은 특정 내국인 집단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 왔다. 특히 교육학 분야에서는 청소년 혹은 초등학교 등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김경근·황영정, 2012; 박인아, 2013; 백승대·안태준, 2013; 이자형·김경근, 2013; 이자형 외, 2014; 최경일, 2016; 한윤선 외, 2014). 이에 본 연구는 전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함으로써, 전반적인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 여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다.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집단 간 비교를 한 선행 연구의 경우, 주로 국가 간 비교(김태완 외, 2016; 이희창, 2016) 혹은 도시와 농촌 간 비교로 이루어졌다(최경일, 2016). 뿐만 아니라, 접촉경험의 여부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에의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시행되어 왔으나(김경근 외, 2015; 양계민·이우영, 2016), 이는 과거 경험의 횟수에만 초점을 맞추어 미래의 접촉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접촉의 기회를 늘려 접촉경험이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위협의식의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에서 외국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고려함으로써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구설계

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국민정체성과 위협의식, 그리고 접촉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과 시민정체성으로 세분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으며, 민족정체성은 강할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낮아지며, 시민정체성은 다문화정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경근 외, 2015; 김혜숙 외, 2011; 백승대·안태준, 2013; 심우엽, 2010; 양계민·이우영, 2016; 윤인진·송영호, 2011). 하지만 본 연구는 국민정체성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은 그 경계가 모호하며 전반적인 국민정체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과(윤인진·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은 민족적 특성이 강하다는 결과(김혜숙 외, 2011)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국민정체성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감소할 것이다.

백승대·안태준(2013)은 이주민에 대한 위협의식은 문화적인 위협과 권력·자원·이익 등에 대한 집단 간 갈등, 경쟁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위협의식은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불관용적 태도와 차별, 편견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위협의식이 증가할수록 다문화수용성이 감소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정체성 유형 중 민족정체성이 위협의식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정하나, 2016)와 위협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준다는 결과(이자형·김경근, 2012)를 종합하여, 이주민에 대한 위협의식이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을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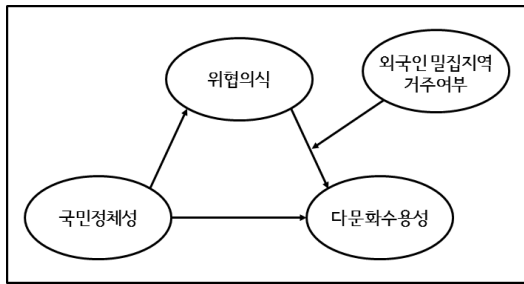
가설 2-2: 위협의식은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Williams(1947)는 접촉이론에 의하여 집단 간의 접촉을 통해 우호적 관계를 경험하게 되면 다른 집단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편견, 적대감은 감소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다수의 선행연구들(김경근 외, 2015; 양계민·이우영, 2016)은 이를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 여부는 위협의식과 다문화수용성 간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정한 위 네 가지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자료 및 변수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네 개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013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종합사회조

사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학술적 목적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연구 혹은 국가 간 비교연구 등의 사회과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설문조사로, 본 연구자료인 2013년도 자료는 총 52%의 응답률로 1,294명의 표본을 갖는다(김지범 외, 2017). 한국종합사회조사는 전국 단위로 실시되며, 특히 2013년 자료의 경우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변수인 국민정체성과 위협의식,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종속변수인 다문화수용성은 한국에 살기 위해 온 외국인, 즉 이주민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국적이 없는 합법적 이민자들도 한국국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지녀야 한다”, “합법적 이민자들은 한국국민들과 동등한 공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준다”, “이민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를 가져옴으로써 한국사회를 좋게 만든다”의 네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독립변수인 국민정체성은 한국인이 되기 위한 요건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한국 국적을 갖는 것”,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의 다섯 문항으로 구성하

<표 1> 잠재변수 구성 문항 및 출처

잠재변수	구성문항	변수구성 출처
국민정체성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김경근 외(2015) 백승대·안태준(2013) 정하나(2016)
	한국 국적을 갖는 것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위협외식	외국인 이민자들이 범죄율을 높인다	윤인진·송영호(2011) 황정미(2010)
	이민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한국문화를 훼손시킨다	
다문화 수용성	한국 국적이 없는 합법적 이민자들도 한국국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지녀야 한다	이지형·김경근(2012) 황정미(2010)
	합법적 이민자들은 한국국민들과 동등한 공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준다	
	이민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를 가져옴으로써 한국사회를 좋게 만든다	

였으며, 리커트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매개변수인 위협의식은 이주민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이민자들이 범죄율을 높인다”, “이민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한국문화를 훼손시킨다”의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문항은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설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위와 같이 잠재변수를 구성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을 한 후,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 여부의 위협의식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외국인 밀집지역을 설정하는 공식적인 기준은 없으나, 안전행정부는 2011년에는 거주 외국인 1만 명 이상 또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이 5% 이상인 지자체를, 2012년에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이 10% 이상인 지역을 외국인 밀집지역이라고 설정하였다. 경찰청에서는 등록외국인 비율이 2% 이상인 지역을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보았다(경찰청 외사국, 2011).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분포가 전국 지자체에 균등하게 분포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여 시군구 수준에서 전국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외국인 비율(1.9%)³⁾을 참고하여 등록외국인의 비율이 2% 이상인 지역을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설정하였다.³⁾

4. 분석 결과

1) 신뢰도 및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앞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한 잠재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의 Cronbach's α 값이 모두 0.5 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⁴⁾ 또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지수들이 적합도 기준값을 충족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은 0.7과 0.5 이상으로 (Hair et al., 2006)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분석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246.40$, $df=51$, $p<.001$, $GFI=.97$, $AGFI=.95$, $NFI=.93$, $RFI=.91$, $CFI=.94$, $RMSEA=.05$).

분석 결과, 각 경로의 모수 추정치는 <표 3>과 같다. 국민정체성이 위협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위협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

<표 2> 신뢰도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치	CR	AVE	Cronbach's α
국민 정체성	한국 태생	.841	0.89	0.61	.837
	한국 국적	.823			
	한국어 구사	.768			
	한국 거주(생애 대부분)	.762			
	한국인 조상	.705			
위협 의식	한국문화 훼손	.764	0.76	0.55	.602
	한국인 일자리 위협	.732			
	범죄율 상승	.704			
다문화수용성	한국경제에 도움	.741	0.72	0.53	.518
	새로운 아이디어, 문화	.691			
	동등한 권리	.570			
	동등한 공교육	.533			

$\chi^2=324.08$, $p>.001$

$GFI=0.960$, $AGFI=0.939$, $CFI=0.936$, $NFI=0.910$, $TLI=0.917$, $RMSEA=0.041$

〈표 3〉 모형의 모수추정치

항목		요인	표준화	비표준화	S.E.	C.R.	p
위협외식	←	국민정체성	.131	.133	.040	3.341	***
다문화수용성	←	위협외식	-.307	-.240	.046	-5.239	***
다문화수용성	←	국민정체성	.132	.105	.034	3.121	.102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정체성이 높아지면 위협외식도 높아지며, 위협외식이 높아지면 다문화수용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민정체성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위협외식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가설 2-1인 “위협외식이 증가할수록 다문화수용성이 감소할 것이다”와 가설 2-2 “위협외식은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를 채택할 수 있었다. 가설 1 “국민정체성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감소할 것이다”는 채택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족정체성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낮고, 시민정체성 혹은 문화정체성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다는 선행연구(김경근 외, 2015; 김혜순 외, 2011; 백승대·안태준, 2013; 심우엽, 2010; 양계민·이우영, 2016; 윤인진·송영호, 2011)의 결과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종족정체성과 시민정체성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인해 상충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3)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 여부의 조절효과 분석

위협외식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 여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 여부에 따른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두 그룹의 경로모수가 다르다고 보고 분석한 비제약 모형을 통해 지수를 산출한 후, 차이를 보고자 하는 위협외식과 다문화수용성 간 경로에 제약 가해 지수를 산출하였다. 이때 두 모형의 χ^2 값이 3.84보다 크면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배병렬, 2005). 본 연구의 분석 결과 χ^2 값의 차이는 7.236으로 3.84보다 크기 때문에 위협외식과 다문화수용성 경로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 여부의 조절효과

모형	NPAR	χ^2	df	p	χ^2/df
비제약	54	324.081	102	.000	3.177
제약(다문화수용성 ← 위협외식)	53	331.317	103	.000	3.217

〈표 5〉 위협외식과 다문화수용성 간 집단 간 모수 비교

모형	경로	Estimate	S.E.	C.R.	P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	다문화수용성 ← 위협외식	-.494	.101	-4.877	***
외국인 밀집지역 비거주	다문화수용성 ← 위협외식	-.173	.048	-3.589	***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각 집단의 위협외식과 다문화수용성 간 경로 모수를 살펴보았으며, 내용은 〈표 5〉에 나타난 것과 같다. 각 집단별 경로모수를 비교한 결과,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이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집단보다 위협외식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 여부에 따른 위협외식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가 차이를 보였기에 가설 3은 채택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과의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체류 및 거주한 경험으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갈등이 완화되어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접촉가설 이론에 반대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과의 접촉경험이 오히려 외국인 및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시켰다는 것으로, 외국인과의 접촉경험이 부정적이면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을 상승시킨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김혜순·이시철, 2014; 원숙연, 2011; David, 2005).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외국인과의 접촉경험이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급격하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 있으며, 이에 비해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은 낮은 상황이다(백승대·안태준, 2013). 낮은 다문화수용성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차별과 배제 등으로 이어져(원숙연, 2011) 집단 간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이주민 혹은 외국인과 원주민 간의 갈등 해소를 통해 사회통합을 꾀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국민정체성은 다문화수용성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위협의식을 완전매개하여 다문화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촉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집단과 거주하지 않는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비교를 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며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할 때 위협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별되었다.

이를 통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위협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통해, 위협의식을 낮추기 위한 인식적 다문화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위협의식에 관한 문항은 모두 이민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과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개인의 다문화사회 혹은 이주민에 대한 인식적 측면의 결과이다. 따라서 위협의식을 낮추기 위한 다문화교육을 정책적으로 실시하여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낮춤으로써 계속 진행되는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과 원주민 간의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도 다문화교육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민경숙, 2009; 정명희·박외병, 2014). 하지만 다문화정책들은 주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나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이주민을 사회에 통합시키거나 흡수되도록 하기 위해 이주민을 지원하거나 제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이수철, 2014). 따라서,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외국인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그들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접촉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 집단과 비거주 집단을 나누어 위협의식과 다문화수용성 간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협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오히려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접촉가설과 반대되는 것으로, 외국인과의 접촉이 많아질수록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발생하거나 고착화되고, 외국인과의 갈등이 더 잦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강현식, 2010; 원숙연, 2011). 따라서 외국인과 내국인 간에 접촉을 통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이미 생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갈등조정위원회, 혹은 그들이 갈등이 아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접촉가설을 증명함에 있어 단순히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외국인의 비율을 사용하였는데, 실제로 외국인이 그 지역 내에서도 집적분포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경우를 간과하였다. 이는 단순 등록외국인의 비율이 아닌, 범위 내에서 집단 간 분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주지분리지수를 통해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접촉경험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접촉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다면(이자형 외, 2014; 심우엽, 2010) 더욱 명확한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외국인의 출신국적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정형 외, 2017),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분류하여 영향력을 살펴본다면, 좀 더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2차 데이터 활용의 한계로

인해 2013년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더욱 더 세계화가 진전되고 TV, SNS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였기에 최근 자료를 통해 분석한다면 그 변화 양상 또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주

- 1) 이는 세계화와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등으로 인한 현상이다 (송지현·이태영, 2012).
- 2) 2013년 기준 주민등록인구 수는 51,141,463명이며(통계청), 등록외국인 수는 985,923명이다(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3) 시군구 수준에서 2%의 기준하에 분류된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표본의 수는 469명이며,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표본의 수는 825명이다.
- 4) 사회과학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0.5 이상이면 변수의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김계수, 2007).

참고문헌

강운선, 2014, 고등학생의 다문화교육경험 유형이 다문화 수용성 태도 유형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대구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과교육』, 53, pp.31-49.

강현식, 2010, 『꼭 알고 싶은 심리학의 모든 것』, 서울: 소울메이트.

김경근·이지형·이기혜, 2015, 한국인 다문화 수용성 영향 요인들 간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수준의 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5(1), pp.1-28.

김경근·황여정, 2012, 중학생의 자아탄력성 영향요인 분석: 사회심리학적 접근, 『교육사회학연구』, 24(1), pp.205-229.

김경은·윤노아, 2012, 청소년의 국민정체성, 통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인식: 다문화시대 사회과 통일교육에의 함의, 『사회과교육』, 51(1), pp.123-140.

김계수, 2007, 『New Amos 7.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김미진, 2010,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미진·김경은, 2018, 국내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다문화교육연구』, 11(1), pp.1-27.

김병학·고길곤·김대중, 2013,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 위협 요인의 실제 여부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중국인 범죄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

구』, 24(3), pp.343-372.

김지범·강정환·김석호·김창환·박원호·이윤석·최슬기·김솔이, 2017,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김태완·이혜진·이연옥·조운용·노츠타카시, 2016, 한일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비교연구, 『디아스포라연구』, 10, pp.257-290.

김행열, 2013, 한국의 다문화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68, pp.115-136.

김현숙·최송식·김희재, 2011, 국민정체성과 다문화태도의 관계: 한·중·일 대학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5(2), pp.141-168.

김혜숙·김도영·신희천·이주연, 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pp.51-89.

김혜순·이시철, 2014, 국가별 관심 편중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측정: 대구 달서구 사례의 실증 분석, 『지방행정연구』, 28(1), pp.89-114.

남희은·이미란·배은석·김선희·백정원, 2014, 대학생의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성향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8, pp.227-255.

노성훈, 2013, 외국인의 증가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집단위협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4(3), pp.151-184.

민경숙, 2009, 동화 활용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이해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학연구』, 16(2), pp.41-58.

민무숙·안상수·김이선·김금미·조영기·류정아, 2010,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개발연구』, 사회통합위원회.

박선웅, 2013, 초·중등학생의 '한국인' 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 『사회이론』, 43, pp.161-199.

박세훈·정소양, 2010,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국토연구』, 64, pp.59-76.

박윤환, 2010, 수도권 지역 외국인들의 거주지 분리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48(4), pp.429-453.

박인아, 2013,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23, pp.201-233.

박혜숙·원미순, 2010, 대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된 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24(2), pp.303-325.

배병렬, 2005,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서울: 청람.

- 배병렬, 2014, 『Amos 21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백승대·안태준, 2013, 국민정체성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정치학회보』, 21(2), pp.1-24.
- 송지현·이태영, 201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정 분석, 『사회복지정책』, 39(3), pp.151-179.
- 심우엽, 2010, 초등학교생의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 『초등교육연구』, 23(4), pp.43-63.
- 안상수·김이선·마경희·문희영·이명진, 2015,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상수·민무숙·김이선·이명진·김금미, 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전행정부, 2011, 『외국인주민 밀집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
- 안전행정부, 2012, 『외국인주민 밀집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
- 양계민, 2009,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4), pp.387-421.
- 양계민·이우영, 2016, 북한이탈주민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한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12(1), pp.71-105.
- 원숙연, 2008,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42(3), pp.29-49.
- 원숙연, 2011, 외국인 및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의 지형분석: 서울시 25개 구(區)를 대상으로 한 탐색적 시도, 『국가정책연구』, 25(4), pp.27-55.
- 원숙연, 2011,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의 영향요인: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4), pp.561-589.
- 윤상우·김상돈, 2010,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6(1), pp.91-117.
- 윤인진·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55, pp.143-192.
- 이수철, 2014, 다문화사회와 지역사회의 정책적 대응, 『지역사회학』, 15(4), pp.127-152.
- 이자형·김경근, 2012,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2(3), pp.1-24.
- 이자형·김경근, 2013, 중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23(1), pp.53-77.
- 이자형·박현준·김경근, 2014,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영향요인, 『한국교육』, 41(3), pp.5-34.
- 이정아·이윤정, 2016, 초등학교생의 자아존중감 및 공감능력 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16(6), pp.73-91.
- 이희창, 2016, 국가 정체성 유형별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0(1), pp.1-29.
- 임도경·김창숙, 2011,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 이미지, 한국인 인정조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9(1), pp.5-34.
- 임동진·박진경, 2012,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참여자들의 태도와 성향 분석: 공무원, 민간사업자,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2), pp.29-62.
- 정명희·박외병, 2014, 대학생의 다문화교육경험이 사회적 거리감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7(2), pp.81-105.
- 정지은·하성규·전명진, 2011,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입지 선택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46(6), pp.117-129.
- 정하나, 2016, 다문화 사회의 위협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한국인과 거주 외국인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3, pp.83-112.
- 정현·박서연·전희정, 2017, 외국인의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구조적·문화적·환경적 관점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5(4), pp.307-336.
- 정희옥·박명아, 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관련 자치법규의 비교 분석: 외국인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11(1), pp.5-43.
- 최경일, 2016, 도시와 농촌 초등학교생의 또래관계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차이: 학교적응과 지역사회 인식의 매개효과, 『GRI 연구논총』, 18, pp.103-126.
- 최은진·김의준, 2011, 출신국적에 따른 서울시 외국인 이주자의 거주지 분리, 『도시행정학보』, 24(4), pp.85-107.
- 하성규·마강래·안아림, 2011, 서울시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패턴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2(3), pp.91-105.
- 한운선·김부경·전수아, 2014,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정환경 요인과 다문화 밀집지역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1, pp.97-125.
- 황정미, 2010,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새로운 성원

- 권의 정치학 관점에서, 『아세아연구』, 53(4), pp.152-184.
- 황정미, 2016, 사회적 위협 인식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 『아태연구』, 23(2), pp.311-346.
-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llport, G.,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Addison-Wesley.
- Blalock, H., 1967, 『Towards a Theory of Minority Group Relations』, New York: Capricorn Books.
- Bobo, L., 1983, Whites' opposition to busing: Symbolic racism or realistic group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6), pp.1196-1210.
- Brubaker, R., 1992,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David, B., 2005, 『Us and Them』, New York: Little, Brown, and Company.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6th ed.)』, New Jersey: Prentice Hall.
- Pettigrew, T, 2003, People under threat: Americans, Arabs, and Israelis,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9(1), pp.69-90.
- Quillian, L., 1995, Prejudice as a response to perceived group threa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4), pp.586-611.
- Scheepers, P., Gijsberts, M., & Coenders, M., 2002, Ethnic exclusionism in European countries: Public opposition to civil rights for legal migrants as a response to perceived ethnic threat,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8(1), pp.17-34.
- Smith, A. D., 1991, 『National identity』, University of Nevada press.
- Tajfel, H. and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Chicago: Nelson-Hall, pp.7-24.
- 게재신청 2019.03.11.
 심사일자 2019.03.12.
 게재확정 2019.03.18.
 주저자: 박서연